

■ 영산강 프로젝트 첫 삽 의미와 전망



수질 오염으로 신음하는 영산강을 되살리기 위한 '영산강 프로젝트'가 오는 29일 나주 영산포에서 열리는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오는 2015년까지 하도준설을 비롯 34개 사업에 모두 8조5천5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사진은 나주 지역을 끼고 흐르는 영산강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씩어가는 강 살려 성장동력 삼자”

영산강 뱃길 복원사업이 오는 29일 나주 영산포 교 인근 하도 준설 공사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역발전정책 중 하나인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영산강이 포함된다. 2009년 예산에 1천811억원이 반영되는 등 영산강 프로젝트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영산강 뱃길 복원은 과거 영산강이 갖고 있는 뱃길을 되살리는 것과 농업용수에도 못 미치는 수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오는 2015년까지 8조5천550억원을 투입해 영산강 하구둑~광주 광신대교(83.59km)에 이르는 구간을 폭 60~70m·수심 6m 정도로 준설하는 사업이다. 이번 국회에서 확정된 영산강 관련 2009년 예산은 1천811억원이다.

1단계 하수처리장 건설  
수질 4→2급수로 개선

사업 초기 년도의 만큼 2009~2010년(1단계)까지는 뱃길복원 보다 하도 준설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 수질 환경 개선사업에 집중돼 있다. 현재 영산강의 수질은 농업용수로도 사용하기 어려운 4~5급 수준이기 때문에 2급수 이상의 수질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내년에 1천428억원을 들여 하수종말처리장(하수관거, 하수구 정비)을 건립한다. 또 주요염원인 오니 및 퇴적토 준설을 위해 몽탄~영산포 22km 구간에 대해 300억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하도 준설을 전개한다. 이와 함께 천변 저지대 농경지 삼습 침수를 막기 위해 나주시 영산동 등 4개소에 홍수조절용 저류지도 조성된다. 실시설계가 끝난 영산강 강변도로(132km) 사업과 나주 고대문화원 개발사업 등에도 98억원이 투입돼 공사가 시작된다.

■영산강 프로젝트 단계별 추진계획

단계별	사업계획		'09사업	
	사업명	규모	사업비(국비)	면적
	총계		62,460	4,500
	소계		53,440	4,500
	하도준설(술안정비 포함)	L=22km 몽탄~영산포	1,870	300
	천변저류지	4개소 1,500㎡	1,830	390(보상비)
	영산강변도로	132km	4,060	60
	2급수이상 깨끗한 영산강 조성	하수종말 처리시설등	13,000	2,170
1단계(2009~2010)	배수관로·통선문 확장	240~480m 6~60m	17,730	30(설계비)
	고대문화원 특정지역개발	문화재 및 관광휴양 시설	5,310	500
	하구둑 대체교량 건설	L=3km	3,000	50(설계비)
	보성~임성간 철도노선 변경	L=20km	4,000	철도노선 변경계획 반영
	영산호·영암호 연락수로 확장	15~140m	2,640	1,000
	소계		4,420	
2단계(2010~2012)	영산강 횡단 교량 개수	3개소	2,640	
	영산강변 전야마을&뉴타운조성	200세대		300
	장성호등 4대호 준설	4개면		1,480
	소계		4,600	
3단계(2012~2015)	영산강 주변 관광개발	컨벤션타운, 실버타운 등		4,600

1단계(2009~2010년) 사업 중 수질환경 개선과 관련된 분야는 대부분 예산이 반영됐지만 뱃길복원과 직결되는 배수관로·통선문 확장 및 영산호·영암호 연락수로 관련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대운하 전단계라는 여론의 반발을 우

려한 정부의 판단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남도는 뱃길 복원을 위해서는 영산호 배수갑문(폭 240m→480m)·통선문(폭 6m→60m) 확장과 영산호·영암호 연락수로 확장(폭 15m→140m)이 불가피한 만큼 내년에 다시 국고지원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2단계인 2010년~2012년까지는 영산강을 횡단하는 동강교·몽탄대교·화산교 등 3개 교량을 개보수하는 한편 영산강변에 전야마을 및 뉴타운을 조성한다. 또한 광주호와 나주호, 장성호, 함동호 등 4개 댐의 높이를 2m 가량 높일 계획이다. 3단계인 2012~2015년에는 영산강 주변에 컨벤션 타운, 실버타운 등을 건설하는 등 본격적인

컨벤션타운·실버타운 조성  
영산강 일대 관광 개발도

관광개발이 진행된다. 더불어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따라 영산강 일대 나주와 함평지역 마을들이 관광상품으로 개발된다. 이 마을들에는 지역 특산물과 향토음식,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은 패키지 프로그램을 도입해 브랜드화하는 작업도 병행된다. 또한 이들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저수지와 양·배수장, 수로 설치 등 생산기반이 정비되며 강 정비로 조성될 둔치엔 조사료를 심어 축산농가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전남도 홍석태 건설방재국장은 “영산강 프로젝트는 운하사업이 아니라 깎아지른 영산강을 살리고 옛 뱃길을 복원해 전남도의 성장동력으로 삼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풍부한 자연환경 기반 녹색성장 모색

■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밑그림 제시

전남도를 비롯한 한반도 남해안을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권이자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축으로 개발하기 위한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밑그림이 제시됐다. 전남도와 부산시, 경남도를 아우르는 남해안 일대의 풍부한 자연환경을 기반 삼아 새로운 녹색성장 동력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가 구체화되고 있다. 국토연구원 이 3개 시·도의 의뢰를 받아 수행중인 용역의 배경과 주요 내용, 향후 일정 등을 알아본다. <종합기획 수립 배경>=지난 2005년 4월 여수에서 열린 '남해안발전 국제심포지움'에서 남해안시대 개막과 관련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형성됐다. 그 후 정치적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국책을 겪은 끝에 남해안발전특별법은 국내 전 연안권을 포괄하는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제정으로 결론났다. 이 법의 효율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권역 발전을 위한 부문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7월 말 용역이 발주됐다. 이 법 자체가 2020년까지 한시법이어서 사업기간도 그때까지이며 사업 범위는 전남 16개 시·군과 부산 10개 구·군, 경남 9개 시·군 등 해안선에 연결한 35개 시·군이다. <남해안권 발전방향>=남해안권은 자연환경과 제조업, 관광·휴양, 항해·물류산업,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농수산업 등에서 커다란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에 반해 독립된 경제권으로서 규모나 경쟁력이 미흡하고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경쟁력 약화, 새로운 성장동력 부족, 해양·도시 자원 개발 미흡, 지역간 현저한 SOC 격차, 지식집약형 첨단제조업과 지식

기반 서비스업 취약 등 한계도 적지 않다. 이번 보고서는 남해안권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산업분야를 고도화하고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의 일정과 과제>=전남도 등 3개 시·도는 이번에 기본구상 위주로 중간보고를 받고 내년 4월까지 시·도별 종합계획 시안을 확정하고,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아 10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요 선도사업과 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등에 대해 승인을 받으면 사업은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3개 시·도가 '공동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공동으로 노력해왔으나 내년 중반부터는 누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또 시행할 것인지를 놓고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각각의 사업이 예산을 확보해 나름대로 추진하면 되지만, 공동사업의 경우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홍행기자 redplane@

“선진국 되기 위해선 식량 자급자족 시급”

‘위기의 농어촌’ 토론회서 민주당 김영록 의원 주장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식량 안보 차원에서 자급자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영록 국회의원(해남·안동·진도)이 23일 해남군 문화회관에서 주최한 ‘위기의 농어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들은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28%에 불과한 만큼 식량 안보에도 큰 문제가 있다”며 “이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병연 해남군 농민회 사무국장은 “농촌은 노령화와 영세화 등으로 폐쇄의식이 팽배한 상황이다”며 필리핀 등 세계 각국에서 식량 위

기로 인한 시위와 폭동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OECD 30개 회원국 중 곡물 자급률이 26위에 불과한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사무국장은 또 “비료 값 등 농업 생산비의 폭등으로 적자 농사를 짓고 있는 게 한국 농업의 현실”이라며 “농촌희생 및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기용 순천대 교수도 “한국의 농촌은 노령화와 영세화 등으로 폐쇄의식이 팽배한 상황이다”며 “이 같은 현실을 방관할 경우 농업

의 붕괴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규모화와 조직화, 경영혁신 등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농촌을 이끌어갈 우수한 인력을 유입하고 육성해 세계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김영록 의원은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식량 자급률이 100%를 넘어서고 있다”며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농촌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식량 자급률을 100%대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남=박진기자 lucky@

한미 FTA 상정 규탄 결의안 채택

전남도의회

전남도의회는 2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상정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국회는 한미 FTA 비준안 날치기 상정이 원천 무효임을 인정하고 비준안 처리 강행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비준안을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고 FTA의 심각한 폐해를

철저히 검증해 근본적인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여·야가 타협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을 국회, 청와대,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에 보내 분야별 FTA 대책을 마련하고 나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 비준안을 처리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홍행기자 redplane@

**2009년 1월 2일**

**중국어로 대학가기**

한국어·중국어·영어·일본어·대만어·베트남어·태국어·필리핀어·말레이어·인도네시아어·몽골어·티베트어·한국어·중국어·영어·일본어·대만어·베트남어·태국어·필리핀어·말레이어·인도네시아어·몽골어·티베트어

**한중어학원**

www.littlechina.co.kr

**중국어 명문대학 입학반 모집**

2009년 1월 2일 입학반 모집

- 1. 1월 2일 입학반 모집
- 2. 1월 2일 입학반 모집
- 3. 1월 2일 입학반 모집
- 4. 1월 2일 입학반 모집
- 5. 1월 2일 입학반 모집
- 6. 1월 2일 입학반 모집
- 7. 1월 2일 입학반 모집
- 8. 1월 2일 입학반 모집
- 9. 1월 2일 입학반 모집
- 10. 1월 2일 입학반 모집

**북경대 청화대 입시준비반**

- 1. 1월 2일 입학반 모집
- 2. 1월 2일 입학반 모집
- 3. 1월 2일 입학반 모집
- 4. 1월 2일 입학반 모집
- 5. 1월 2일 입학반 모집
- 6. 1월 2일 입학반 모집
- 7. 1월 2일 입학반 모집
- 8. 1월 2일 입학반 모집
- 9. 1월 2일 입학반 모집
- 10. 1월 2일 입학반 모집

**한국외국어대학 FLEX 준비반**

- 1. 1월 2일 입학반 모집
- 2. 1월 2일 입학반 모집
- 3. 1월 2일 입학반 모집
- 4. 1월 2일 입학반 모집
- 5. 1월 2일 입학반 모집
- 6. 1월 2일 입학반 모집
- 7. 1월 2일 입학반 모집
- 8. 1월 2일 입학반 모집
- 9. 1월 2일 입학반 모집
- 10. 1월 2일 입학반 모집

**한중어학원 중국어 전문특원 1월 2일 겨울방학특강 대개강**

- 1. 1월 2일 입학반 모집
- 2. 1월 2일 입학반 모집
- 3. 1월 2일 입학반 모집
- 4. 1월 2일 입학반 모집
- 5. 1월 2일 입학반 모집
- 6. 1월 2일 입학반 모집
- 7. 1월 2일 입학반 모집
- 8. 1월 2일 입학반 모집
- 9. 1월 2일 입학반 모집
- 10. 1월 2일 입학반 모집